

신안선 등 수중고고학적 기록물, 고품질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새롭게 개방한다

- 한국문화정보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을 위한 MOU 체결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 이하 연구소)는 16일 목포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新安선 발굴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 스캔 및 보정·복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정원의 ‘2025년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중유산 기록물을 고품질 디지털 자료로 전환하여 개방하고, 국민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新安선은 14세기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으로, 1976년 시작된 발굴 작업은 한국 수중고고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故한석홍 선생이 촬영한 필름 자료와新安선 관련 기록물은 선체 인양 과정과 출수 유물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문정원 정운현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新安선 등 수중유산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공공저작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디지털 스

캔 및 보정·복원하여 고품질로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가유산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주콘텐츠진흥원, 충남문화재단 등 5개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붙임 : 협약식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지능정보사업본부 공공저작물팀	책임자	팀장	김동운 (02-3153-2832)
		담당자	선임	이선아 (02-3153-2873)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